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 분석*

이 상 우**

요약

이 논문은 초국적 사회공간인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인 이주자 자녀 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비용과 학부모들의 선택과의 연관성 속에서 학교교육을 살펴보고,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검토했다.

연구를 통해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칭다오에서는 교육열의 한국적 상황과 계층간·종족간 '구별짓기'가 그대로 재현되었고, '강남엄마'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원정엄마'의 탄생과 함께, 동남아 교육 이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확정된 미래에 따른 '유동적 이동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중국으로의 교육이주에 있어서 이상적인 교육상이 '지한'(知韓)과 '지중'(知中) 교육 및 양국 문화의 차이 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가정 및 자녀교육에서 나타나는 한인 이주자간, 한인 이주자와 현지 중국인 간의 '구별짓기' 교육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201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세심한 논평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중국해양대학교(中國海洋大學) 한국학과 전임강사, hyhgjy@163.com

주제어: 중국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사교육/조기교육, 가정 및 사회교육

I. 문제제기

이 논문은 초국적 사회공간인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 교육열이 높은 중학교 학부모들이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냐”라며 관심을 보였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개인은 물론 한국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순기능을 했던 교육열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역기능을 동시에 품고 있다. 한국 교육열의 역기능은 입시지옥, 사교육 번성, 학력주의, 학벌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높아지는 교육에 대한 욕구는 학벌을 중시하고 교육을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와 결합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발생시켰고, 현재 사교육은 경쟁적 교육구조로 인하여 더욱 조기화되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 2). ‘대치동 맘’(Daechidong moms)¹⁾이나 ‘기러기아빠’²⁾ 등은 한국

1) 이 용어는 2005년에 국제화된 한국말 영어로 CNN, 일본 마이니치, 미국 시카코트리뷴 등에 널리 보도된 한국의 사생결단 교육열(life-and-death exams)이라고 알려진 것이다(<http://blog.naver.com/esuccess/40020369934>). 한편, ‘헬리콥터맘’, ‘매니저맘’, ‘타이커맘’ 등은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들이다.

2) 김지훈(2014, 208-209)에 따르면, 홍콩·대만에는 ‘기러기’의 ‘원조’격인 ‘우주비행사 남편’(astronaut husband), ‘낙하산 자녀’(parachute children), ‘인공위성 가족’(satellite families)이 존재한다고 한다. 한국에는 ‘기러기아빠’를 원조로 한 ‘부영이

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또는 조기유학)이 유행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인데, 조기유학 대상 국가는 1997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구미국가들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 이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이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해지는 중이다(홍석준·성정현 2009, 240). 그럼에도 조기유학 대상국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영미권 국가,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국가가가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중국 사례(예컨대 초국적 도시 칭다오, 상하이, 베이징)에 대한 관심은 적다.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 논문은 중국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칭다오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는 장수현(2013)이 유일하다.³⁾ 장수현(2013)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칭다오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들의 교육적 선택과 관련하여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따른 선택의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현(2013)을 포함한 중국 사례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은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녀(또는 개인)의 교육(또는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은 칭다오 또는 상하이(예성호 외 2014)라는 현재까지의 이주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동적 이동성’(fluid

아빠’, ‘펑권아빠’, ‘참새아빠’ 등도 있다.

3) 물론 선행연구 검토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재외한국학교의 운영실태 등을 다루면서 칭다오의 한국학교(청운학교)도 포함시킨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mobility)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용과 성과 등 주요변수들을 고려한 초국적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전략적 결정은 칭다오라는 공간에 국한된 과거형이 아니라, 한국-중국 또는 한국-중국-제3국 공간에서의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칭다오는 “대한민국 칭다오시” 또는 “중국 속 한국특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한인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 중 하나다(장수현 2013, 180; 구지영 2014, 5). 2015년 현재 칭다오 소재 산둥(山東)성에는 한국 재외국민이 10만 명 있고, 그 중 절반은 칭다오에 있다(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2015). 또한 한인 자녀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와 중국학교 등 학교들은 물론, 한국내 사교육 형태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학원과 과외, 그리고 학습지 등 다양한 사교육 형태들이 칭다오에서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네 가지 차원의 비교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교육에 초점을 맞춘 칭다오와 한국의 비교, 그리고 칭다오와 기타 한인 집거지 또는 조기유학지-중국내 기타 한인 집거지, 동남아 국가 및 지역, 기타 국가 및 지역-간의 비교연구 등이다.

이 논문의 연구주제인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는 이주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환경과 기회의 실재를 뜻하며, 그 내용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사회과학연구의 기본방법인 문헌연구방법 외에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과,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교육담당 영사와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한다. 우선, 연구자는 “칭다오 한인사회(중국

조선족 이주자와 한인 이주자)에서의 민족교육 현황”을 주제로, 칭다오에 거주하는 장점을 살려 2012년 10월부터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왔다.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해 방문조사와 참여관찰을 수행했고, 교육 현장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⁴⁾를 진행했다. 더불어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의 『뉴스레터』와 『산동성 주간 언론동향』, 그리고 칭다오 거주 한인들이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와 광고책자인 『한상저널』, 『칭다오한국인』, 『청도 굿모닝』, 『산동교차로』 등을 참조했다. 아울러 칭다오 거주 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칭한모’(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와 ‘칭도마’(칭다오 한국인 도우미마을)의 교육 관련 글과 댓글 등을 통해 연구자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위의 문제제기에서 연구자가 주목했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칭다오 한인사회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주자 자녀의 학교·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러한 학교교

4) 초점집단인터뷰는 6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해 면접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으로 실시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별도의 장절로 구성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 인용시 나이, 성별, 주거연한, 직업 순으로 밝힌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대상자의 자녀가 칭다오에 주거한 연한이 3년 이상인 학부모로 한정했다. 이는 최근까지 이주자 자녀의 대부분이 한국대학 진학(특례입학)을 목표로 한 점, 더불어 한국대학 특례입학(공식명칭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제도의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3년 특례 입학생과 12년 특례 입학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하며 학업을 이수했기 때문에 한국내의 교육환경과 상이한 수학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 입시제도로, 대학의 정규 입학 정원과는 별도로 전체 정원의 2% 이내 인원이나 혹은 순수 정원 이외에 약간 명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특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입시 제도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몇 년을 수학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3년 특례 입학생(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해 3년간 해외에서 수학한 학생)과 12년 특례 입학생(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이 두 전형 이외에도 몇몇 대학에서는 2년, 6년, 9년 등 다양한 특례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엄성원 2015, 162).

육과 더불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이를 기초로 제언과 후속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이 논문은 초국적 사회공간인 중국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대상은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을 검토한 연구들에 한정한다. 더불어 초국적 사회공간에서의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국 기타 초국적 도시나 동남아국가에서의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을 논의한 대표적 연구도 선행연구의 검토대상에 포함된다.⁵⁾

이 논문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는 장수현(2013)의 연구이다. 장수현(2013)은 칭다오지역의 한인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교육 현장에 초점을 맞춰,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이들의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들의 교육적 선택과 관련하여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초국적 교육환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국제화교육, 국민교육, 현지화교육, 세 교육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시킨 변종 모델)에 대한 도식화,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야기한 다양성 딜레마, 즉 학

5) 영미권 국가와 지역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영미권 국가와 지역은 한국보다 발달한 ‘선진국가’들이고, 동남아국가와 지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정책적·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을 두루 고려한 전략적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성호 외(2014)는 장수현(2013)에서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모델의 유형을 중국 상하이 지역에 적용해, 상하이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선택 유형을 한국학교 선택(‘외국아이’가 아닌 ‘한국아이’≒국민교육), 중국학교 선택(‘로마에서는 로마법’을, ‘중국통으로’≒현지화교육), 영미계 국제학교 선택(‘자유와 선택’속의 다양성과 자립심’≒국제화교육), 그리고 중국학교 국제부 선택(이른바 ‘퓨전식 교육’≒세 교육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시킨 변종 모델)으로 정리하면서, 자녀교육 선택과 그 원인을 ‘초국가주의 역동성’(Dynamics of Transnationalism)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찾고 있다. 장지혜(2015) 역시 베트남 이주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자녀교육의 딜레마, 즉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려는 원래의 목표와 철저히 ‘한국식’ 교육을 시키는 현실간의 괴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논문이 한인 이주자들의 교육관과 학교선택 동기 등을 검토함에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 운영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준희(2008), 최기수(2010)와 김정화(2012)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 운영실태 전반을, 그리고 재외한국학교를 고찰함에 있어 배진숙(2010)은 평가체제, 김성아(2014)는 진로교육, 정일(2015)은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 운영실태를 다룬 상술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재외한국학교, 즉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고 한국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다.⁶⁾ 또한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기관 중의 하나

6)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중국내 한국학교는 2015년 3월 현재 총 12개인데,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 소재 청운한국학교와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학교 두 곳이 있다.

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이념은 민족정체성 교육, 현지적응적 교육과 본국연계적 교육의 3원성을 갖고 있다(김준희 2008, 23). 이러한 교육목표와 이념의 3원성은 결국 장수현(2013)에서 제시한 교육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칭다오 재외한국학교가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본 연구의 완성에 기초자료는 물론 여러 가지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다른 한편, 서에스더(2012)는 베트남 거주 한인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다루면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함께 가정 외에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교육도 다루고 있다. 또한 그녀는 가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정규 교육기관과 사교육인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자녀교육에 있어 가정 내 교육과 가정 외 교육으로의 구분이라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살리는 기초위에, 정규와 비정규 교육기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수정 및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즉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이 아닌 가정 그리고 사회와의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는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위의 선행연구들은 현재까지 이주지에서 진행된 자녀교육과 그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훈(2014)은 한국인 조기 유학생의 이주 궤적은 여러 나라를 거치는 여러 번의 연쇄적인 재이주가 특징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유동적인 이주’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주의 경로·궤적은 다구간적이며 그 시점은 불확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초국적 이주자로서의 교육 이주자의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수준,

로컬 수준, 글로벌 수준의 여건과 맥락이 서로 조응하며 변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업을 주목적으로 한 조기유학생의 이주는 자녀 학업의 성취 수준 정도가 이동 혹은 정주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가족 여건의 변화와 이주국가와 출신국가의 교육제도 등 이주자 수용 맥락은 초국적 교육 이주자의 국경을 넘는 교육 열망을 촉진하거나 혹은 위축시키는 도약대 혹은 허들과 같은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이에 조기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 유형으로 ‘현지 계속 체류형’(로컬수준의 이동성), ‘제3국(1차 조기유학지)에서의 2차 조기유학지로의 이동(글로벌 및 지역적 교육 위계와 도약대로서의 2차 조기유학지) 유형’, ‘한국으로의 귀국형’(혹은 제3국으로의 재이주 후 귀국 유형) 등의 현재까지의 이주 유형과 더불어 불확정된 미래의 재이주인 ‘유동적 이동성’의 유형을 제시한다. 초국적 이주로서의 칭다오에서의 조기유학 역시 이러한 유형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지훈(2014)은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의 특성을 찾아냄에 있어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Ⅲ.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실태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칭다오 한인사회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이러한 한인사회의 변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인 이주자의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본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실태 분석에서는 학교·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교육,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관련 내용을 검

토할 것이다.

1. 칭다오 한인사회의 형성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변천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칭다오 한국인사회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이후 내적 분화기를 거쳐 2008년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구지영 2013, 271).

1980년대 말부터 민간교류방식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300만 달러 이하의 의복, 신발, 포장, 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진출했다. 이 시기에는 대개 경영자나 주재원이 단신으로 이주했다(구지영 2013, 272). 1994년 9월 12일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주칭다오 총영사관)이 중국 본토에 있어서는 주베이징 대사관과 주상하이 총영사관(1993년 7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되었다. 이는 칭다오 한인사회의 급성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동 시기인 1995년 3월 한국정부 현지 파견 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인 칭다오한글학교⁷⁾가 설립되어 재외국민(주로 5~6세의 유아기부터 중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투자는 잠시 침체되기도 하지만, 한중간의 이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투자침체기에도 가족·친지의 연쇄이주, 조기유학을 포함한 교육이주, 공식·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투자이주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무직자까지 다종다양한 한국인이 이동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2000년부터 기업투자가 침체되는

7) 한글학교의 소관부처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이다. 칭다오한글학교는 세종한국학교로 이전하여 수업을 하다가 세종한국학교를 모태로 청운한국학교가 설립되면서 현재 청운한국학교 안에 있다.

2008년까지는 한국과 칭다오 간의 이동과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 규모로 보면, 사람, 자본, 물자가 한국에서 칭다오로 건너 갔다기보다는 한국적 공간(생활공간)이 칭다오로 확장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인적·물적 이동을 통제하는 법제도적 허용범위가 넓어지고 양국을 잇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 활기를 띠면서, 칭다오는 이른바 한중 접경 생활공간에 위치하게 된다(구지영 2013, 272).

한중교류 초반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세금감면 및 수출세 환급정책은 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6-2010년) 중 환경친화적 산업과 고기술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채택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 제공해오던 세금 우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장세길 2009, 12-16; 장수현 2012, 345-346). 또한 2008년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린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인적·물적 이동에 대한 통제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한국자본의 가치 하락, 비정상적 기업철수로 인해 한국기업(인)에 대한 이미지 악화 등으로 많은 한국인이 칭다오를 떠났고(구지영 2013, 273), 2015년 현재 칭다오 거주 한국인의 공식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2015).⁸⁾

한편, 2000년대로 들어선 다음에는 생활여건의 개선, 장기적인 사업이주의 증가, 자녀교육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가족동반 사례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이 조기유학생의 주류를 형성했다.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새로

8) 2007년 당시 한국인 정주민구는 약 10만 명, 칭다오로 입국한 한국인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서 칭다오 한인사회가 규모 면에서 최정점에 달했다면(구지영 2013, 272), 현재는 절반 규모인 5만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은 학교·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장수현 2013, 183).

한인 이주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계 국제학교⁹⁾, 중국계 공립학교, 중국계 공립·사립학교의 국제부·한국부¹⁰⁾, 영미계·일본계 국제학교 등이 있다. 중국학생들과 동일한 중국계 공립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수의 경우 외에, 한인 이주자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학교·교육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 칭다오2중의 국제부가 있고, 사립형 국외국어학교, 백산학교(국제부·한국부), 해산학교(국제부·한국부), 신육영학교(청담학원 운영), QTI(대한학원 운영, 국제부·한국부·중국부) 등도 있다. 더불어 영미계 사립형 국제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ISQ(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¹¹⁾, QIS(QISS)¹²⁾, YCIS¹³⁾ 등에도 영미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한인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ISQ(MTI)의 경우처럼 수업료가 한국계 국제학교 최고 수업료의 3배 정도 되는 200,000위안/년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영미계 사립형 국제학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칭다오 한인 이주자녀의 약 5%정도밖에 안 되므로, 한국계와 중국계 학교의 기본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9) 중국 교육부가 규정하는 정식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의 개념은 순수하게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어 외국 학생만을 받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교과 과정을 위주로 교육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의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미국계 국제학교, 영국계, 혹은 한국계, 일본계 국제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 10) 중국 현지 로컬학교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학교 내 외국 학생들(특히 칭다오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국제부 또는 한국부 등이 분리되어 운영된다. 국제부나 한국부는 해당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하고 외부(한국인 혹은 중국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교과과정이나 교육 방식 등이 실제 중국 학생들이 받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현지 화교육이 아닌 한국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대신 입시 위주로 치우친다.)
 - 11) 현지에서 이 학교는 흔히 MTI국제학교로 불리며, 본 논문에서는 ISQ(MTI)로 표기한다.
 - 12) 이 학교의 정식명칭은 Qingdao No.1 Internaional School of Shandong이다.
 - 13) 이 학교의 정식명칭은 Yew Chung International School of Qingdao인데 화교가 세운 학교이다.

〈표 1〉한인 이주자 자녀 학교·교육프로그램: 한국계 국제학교

설립 연도	학교명	학교 종류	고졸 배출 시간	수업료
2002.3	한국국제학교	사립형	2007.2	72,000위안/년
2004.3	이화한국학교	사립형	2004.12	34,200위안/년
2006.5	청운한국학교 (전신은 칭다오세종한국학교)	공립· 사립형*	2010.12	25,000위안/년 ¹⁴⁾
2008	국기외국어학교 한국부	사립형	2012.2	39,600위안/년
2015.8	정양학교 국제부 (청도대원국제학교)	사립형	미(未)배출	80,000위안/년 ¹⁵⁾

*공립·사립형 국제학교란 한국 교육부와 현지(중국) 교육부 등 양국 교육당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가리킴. 그럼에도 교민들의 기부금과 학비가 학교 재정의 주요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공립이 아닌 공립·사립형으로 표기함.

한편, 중국계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차독비’(借讀費)나 ‘건교비’(建校費) 등의 기부금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학비를 받음으로써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인내해 왔지만 점차 정책적으로 이러한 학비 이외의 명목으로 돈을 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주 축소시켜버림으로써, 기존의 중국 학부모들의 불만까지 고려하여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신규로 한국 학생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이에 칭다오시 교육국에서는 한인 자녀들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정했다. 2005년 봄학기, 칭다오시교육위원회 발표 “신교육법령”

14) 25,000위안/년(한국대학반), 23,000위안/년(중국대학반)인데, 기본은 20,000위안/년과 18,000위안/년이나 학교활동비, 학생회비, 식비, 차량비 등을 포함한 5,000위안/년을 추가한 금액이다.

15)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숙사비는 4만 위안/년, 방과 후 수업료가 6천 위안/학기인데 학원비에 비교해 볼 때 많이 저렴하고, 수업내용도 좋아서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학부모 S2씨(47세, 여, 4년, 대학교 원어민 강사), P씨(48세, 여, 9년, 전업주부)와의 인터뷰 2016/04/12, 2016/06/07).

에 따르면, 2005년 봄학기를 시작으로, 외국인의 칭다오투자근무인원의 자녀가 공립초·중등학교에 입학할 때 받던 차독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해당 학기의 현지 학생들에게 받는 학비 및 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기로 규정했다.¹⁶⁾ 2016년 현재 칭다오시에 외국인유학생 모집 자격이 있는 학교(초·중·고)는 총 69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⁷⁾

2.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 동기체제”를 교육열이라고 하지만(이종각 외 2003), 한국 교육열의 본질이 입시를 위한 교육, 특히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칭다오에서의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또는 교육열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관련 내용도 살펴해보도록 한다. 특히 ‘대학 진학’, ‘특례입학’ 등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이른바 칭다오 한인사회 5대 국제학교이자 칭다오 한인 이주자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인 ISQ(MTI), QIS(QISS)와 한국국제학교(KISQ), 청운한국학교, 이화한국학교 중에서, 한국계 국제학교인 한

16) 위 발표 기준에 적용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된다. ①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서류증 혹은 유효한 증빙서류, ②기본적인 중국어 수학 및 교제능력, ③칭다오시 규정에 부합하는 수학연령, ④학부모가 칭다오에 투자 및 근무하고 있다는 유효한 증빙서류, 즉 정식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투자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학생에 대해서는 현행의 차독비 기준(초등학교 1,000위안, 중학교 2,000위안, 고등학교 3,000위안)으로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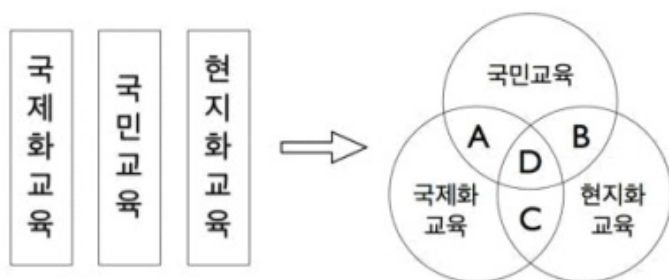
17) 장수현(2013, 192)은 외국인 자녀 입학 가능 학교가 초중고 통틀어 총 62개교로 기록했는데, 최근 산둥성교육청(山東省教育廳)에서 발표한 외국인 자녀 입학 가능 초중고교 리스트에는 69개교가 이름을 올렸다(山東省教育廳: 山東省接受外國留學生學校名單 2016/04/11).

국국제학교, 청운한국학교, 이화한국학교, 그리고 로컬학교인 칭다오2중 국제부의 고등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학교·교육프로그램

한국계 국제학교와 로컬학교 고등부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육모델에 있어서 장수현(2013)이 지적했듯이, 대체로 국제화교육, 국민교육, 현지화교육과 세 교육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시킨 변종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칭다오 교육모델의 다양화



출처: 장수현 2013, 190.

청운한국학교와 한국국제학교는 국민교육과 국제화교육을 접목시킨 프로그램(A), 이화한국학교 한국대학 진학반은 국민교육과 현지화교육을 접목시킨 프로그램(B), 이화한국학교 중국대학 진학반과 칭다오2중 중국대학반은 국제화교육과 현지화교육을 접목시킨 프로그램(C), 칭다오2중 한국대학반은 세 가지 모델을 골고루 섞은 프로그램(D)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볼 때, 중국교육부와 한국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유일한 학교인 청운한국학교¹⁸⁾와 전통적으로 한국대

학 특례입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국제학교¹⁹⁾는 한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이화한국학교의 경우, Two-Track제를 고등부 교육과정에 편성시켜, 이른바 ‘한국대학 진학반’(특례 입학)과 ‘중국대학 진학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5대 명문대학²⁰⁾의 외국인 특례 입학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청운한국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학교를 선택할 경우, 학부모들은 각자의 희망 대학에 근거해, 그리고 각 학교의 강세에 비추어 한국국제학교와 이화한국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국제학교, 이화한국학교 관계자 인터뷰 2015/03/05, 2015/04/09).

한편, 장수현(2013, 193-194)이 지적했듯 국가관이나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학교 선택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국공산당을 찬양하거나 중국을 조국이라고 말하는 자녀들 때문에 한국학교로 전학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학부모 L씨(50세, 여, 12년, 대학교 원어민 강사)와의 인터뷰 2015/08/07).

한국계 국제학교와 로컬학교의 고등부 교과과정을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청운한국학교의 교과과정은 한국의 7차 교육과정에 준하지만 현지 상황을 감안해 영어와 중국어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

18) 한국국제학교와 이화한국학교도 학력은 인정받으나 한국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 교육부인 칭다오시교육국이나 산둥성교육청 또는 중국 교육부의 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이다. 중국교육부와 한국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유일한 학교인 청운한국학교는 특례 입학이나 수시를 통해 한국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거의 100%다(학부모 H씨(45세, 남, 8년, 중국어학원 원장), 학부모 S1씨(57세, 여, 9년, 학원 한국어강사)와의 인터뷰 2015/10/15, 2015/12/11).

19)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도 한국국제학교가 한국 특례 입학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2005년 고등부 개설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우수 대학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졸업생 117명 중 특례 입학 합격자만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 2009/11/11).

20) 중국 5대 명문대학은 베이징대(北京大), 칭화대(淸華大), 런민대(人民大), 푸단대(復旦大), 상하이교통대(上海交通大)를 가리킨다.

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국제학교와 이화한국학교는 한국 7차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공립·사립형 청운한국학교가 설립되어 학교 그곳으로 학생들이 물리게 되자 학교 존립을 위해 영어 교과과정을 도입하거나 입시대비 과목들을 보강하고, 중국대학 진학자들을 위한 중국부를 따로 개설하는 등 변화를 꾀해왔다(장수현 2013, 185-186).

〈표 2〉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단위 배정표(단위: 교시)

학교		수강 언어			총 수업시수
		한국어	중국어	영어	
청운한국학교		24		14	40
한국국제학교		25		12	40
이화한국학교*	한국대학 진학반 (특례입학)	15	10-12	10-14	40
	중국대학 진학반		20-22	6-8	
칭다오2중	한국대학반	15	10	15	40
	중국대학반	4	28	8	

*1-2학년 학교장 재량활동 5교시, 3학년 학교장 재량활동은 9교시.

**출처: Qingdao Chungwoon Korean School, School Profile(2015학년도), 한국국제학교 2015학년도 고등부 교육과정, 이화한국학교 2016학년도 고등과정 편성표(고등학교 전학년). 장수현(2013, 188-189)과 참여관찰을 통해 정리함.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상술한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수 외에도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부모의 비자여건이고(학부모 K씨(49세, 여, 10년, 자영업), L씨(50세, 여, 12년, 대학교 원어민 강사)와의 인터뷰 2015/04/16, 2015/04/25), 다른 하나

는 교통여건이다(학부모 H씨와의 인터뷰 2015/12/28). 청운한국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비자가 Z비자 소지자여야 한다.²¹⁾ 즉 청운한국학교가 기타 한국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적는데, 그렇다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교통여건이다. 청운국제학교, 이화한국학교는 청양구에 있고, 한국국제학교와 칭다오2중 국제부는 노산구에 있다. 물론 한국학교들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하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불어 학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구에 속하지 않는 학교·프로그램을 선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학부모의 학교·교육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최근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위상의 격상과 더불어 한국 대학생들의 취업난과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중국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학부모 S2씨, P씨와의 인터뷰 2016/04/12, 2016/06/07). 다른 하나는 중국에 있는 한인 이주자 자녀들의 한국대학 특례 입학 성공에 있어 칭다오가 강세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상하이 등 기타 지역의 어머니들이 ‘칭다오 원정’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²²⁾ 이러한 원정을 통해 현지 학교와 입시

21) Z비자(Z字签证)는 단순비자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비자를 가리킨다. 중국에 입국한 후, 30일 이내로 거류수속을 반드시 마쳐야 중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외국인 취업비자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취업비자 서류 중에는 대학교 졸업 후 필히 경력 2년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서 졸업하여 바로 취업하려는 한국 유학생은 졸업후 즉시 중국내에서 취업 장애에 직면하여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각 성마다 신청 필요 서류와 체류 기한이 다르다.

22) 2015년 11월 28일 청양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칭다오2중 국제부, 2016년 3월 28일 이화한국학교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입시설명회가 열렸고, 다수의 타 지역에서 원정은 온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대학 특례 입학 성공에 있어 칭다오가 강세지역으로 부상한 이유와 관련해, S2씨와 H씨는 칭다오에는 한국대학 특례입학 관련 정보들이 많다고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국대학 특례입학 정보는 칭다오에, 중국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정보는 베이징에 가라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학부모 S2씨, H씨와의 인터뷰 2016/04/12).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요청한다든가, 칭다오 한국학교에서 입시설명회에 참가하는 등의 경우이다. ‘원정엄마’에서 정보력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는 이른바 ‘강남엄마’를 연상케 한다.²³⁾

2) 사교육

칭다오에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학교·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러한 다양성은 사교육 영역에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장수현 2013, 180). 상술하다시피 한인 밀집 지역에는 한국내 사교육 형태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학원과 과외, 그리고 학습지 등 다양한 사교육 형태들이 칭다오에서 성행하고 있다.

한국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에 알맞은 사교육 형태를 선택하여 1-2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2중 국제부 고3 교육과정에 다니는 한국대학 희망자 K양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K양의 하루 일과

시기	1학기	2학기
8:00-12:00	학교 수업	학교 수업
13:30-16:30	학교 수업	점심, 중국어 학원 강의 1
16:30-18:00	학교에서 명인광장 학원가로 이동, 저녁식사	중국어 학원 강의 2
18:00-20:00	중국어학원 HSK시험 대비 수업	중국어학원 HSK시험 대비 수업
20:00-23:30	나머지 공부(중국어 단어 암기, 문장 만들기, 숙제)	나머지 공부(중국어 단어 암기, 문장 만들기, 숙제)
23:30-24:00	귀가	귀가

23) ‘원정엄마’라는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나, 연구자가 ‘강남엄마’와 ‘원정출산’을 접목시켜 만든 용어이다.

K양은 한국대학 언어 특기자 전형으로 중문과 또는 글로벌학부 진학을 희망하는데, 2016년 9-10월 있을 수시모집 원서 제출과 면접·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청다오2중을 졸업한 후 한국에 건너가 강남 대치동 쪽에 가서 HSK시험6급 시험점수 올리기 대비 전문학원, 중국어 면접과 에세이 등을 가르치는 전문학원에 들어가 사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국국제학교 재학 K양과의 인터뷰 2015/11/7, 2016/04/12).

한편, 중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상술한 중국 5대 명문대를 포함해 특히 베이징 지역의 명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에 필요한 학원 또는 개인과외를 받는다. 지방 명문대를 포함한 기타 대학의 경우는 거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해양대 한국유학생 H씨(23세, 여, 중문과 학부생), K씨(21세, 남, 영어과 학부생)와의 인터뷰 2015/05/20).

다른 한편, 중국 공립학교 국제부가 아닌 중국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만 하고 수업은 명인광장에 있는 학원가에서 한국 특례입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립학교는 이런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고 졸업장은 주는 대신 수업에서 빼주는 것이다(학부모 S1씨 인터뷰 2015/12/11).²⁴⁾

3) 가정교육

교육의 본래 의미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며,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형태를 분류하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24)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다수 있으며 일반화하기 어렵다.

사회교육으로 구분된다(권정숙 외 2009, 34).

가정교육은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됨’을 집안의 어른에게서 교육 받는 것이다(손연아 외 2013, 249-250). 가정교육은 예의범절, 타자의 인격 존중, 정의감 등 대(對) 사회적인 자녀교육과 정서, 품위, 도덕 등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학력주의가 심화된 교육현실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버렸고(손연아 외 2013, 250), 인간의 형성에서 실리적인 것을 노리는 자녀교육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입시위주의 자녀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자녀교육에서의 성공은 영어교육으로 판가를 나며(서에스터 2012, 22), ‘글로벌한’ 자녀교육의 성공에 있어서 영어 습득과 부/모 나라의 언어 습득이라는 다중언어 자원의 획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장지혜 2015, 122-123). 따라서 한국이 아닌 낯선 영어권 국가에 교육이주를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건대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가정교육의 내용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 우선, 상술한 예의범절, 타자의 인격 존중, 정의감 등 대(對)사회적인 것, 또는 외국이라고 해서 한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관련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와 정서습득이다. 영어나 거주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 출신국의 언어와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두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때야 진정한 ‘글로벌한’ 인재로 될 수 있다.

연구자가 직접 체험한 두 가지 사례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연구자가 대학에서 개설한 수업에서 마주친 상황이다. ‘한국역사’와

‘영화와 한국사회’ 수업을 수강한 칭다오 현지 학교(국제학교, 로컬 학교) 출신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역사문화와 사회, 그리고 중국 역사문화와 사회 어느 것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²⁵⁾ 다음으로, 연구자는 한국대학 진학 준비 중인 고등부 재학생(칭다오에서 국제학교, 로컬학교 다닌 경력 있음)을 만난 자리에서 ‘사육신과 생육신’과 관련해 질문했는데, ‘생육신’을 ‘살아있는 몸’이라고 대답해 당황했던 적이 있다.²⁶⁾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낮고, 더불어 제한적인 현지 여건으로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까지 낮다면 ‘글로벌한’ 인재, 양국 교류의 ‘매개’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교육이주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주요내용은 ‘지한’(知韓), 즉 출신국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습득하여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현지 여건으로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습득이 어려울 때(예컨대 한국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 가정교육의 책임이 더욱 두드러진다.

4) 사회교육

공간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교육은 법률적 강요나 특수 분야의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교육 장소를 불문하고, 학습자 개인이 자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탐구·전개하는 합목적적인 교육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교육은 학교 안에서처럼 완전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닌 교육이라는 뜻에서 ‘비형식적 교육’으로 볼 수 있다.

25) 중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부터 다녔고, 중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기에 한국의 역사문화나 사회를 잘 몰라서 수강했다고 대답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학구열은 높이 평가하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26) 물론 이런 학생들이 다수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사육신보다는 생육신이 대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주자의 가정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에는 언어(이중, 3중 언어)의 교육과 거주국 문화와 정서습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습득은 현지어를 구사하면서, 현지인과의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현지인들에게 친구로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소통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사회교육 또는 가정교육·사회교육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다. 이는 한인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어머니들의 ‘구별짓기’ 교육이다. 홍석준·성정현(2011)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사례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어머니들 간의 ‘구별짓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연출된다고 했다. 자녀의 성적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정보력 등에 따라 그룹에 속하거나 혹은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머니들의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칭다오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주목하는 한인 이주자 어머니들의 ‘구별짓기’는 조금 다르다. 한인 이주자에게 교회는 종교 신앙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중요한 장소이다. 한인교회에서 나타나는 한인 이주자 어머니들의 ‘구별짓기’는 계층분화와 계층간 선긋기 단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자녀가 영미계 국제학교, 한국계와 중국계에 다닌다고 볼 때, 영미계는 영미계끼리, 한국계는 한국계끼리 어울리면서 중국계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교육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한인자녀들 사이에서는 영미계 학교생은 영어로, 한국계 학교생은 한국어로, 그리고 중국계 학교생은 중국어로 교류하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아이들끼리만 어울리고 중국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한다.²⁷⁾

IV.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특성

1. 교육의 파행성: 입시교육 위주와 사교육의 번성

한국의 교육열은 대학 입학 전까지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교육열의 본질은 입시 교육열이라고 한다. 제한된 수의 한인 자녀들을 두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교육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단기 목표에 맞춰 사교육 성격이 강한 과목들을 접목시킨 변질된 교과과정들을 개설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 파행적인 교과 운영을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정규 교과과정을 완전히 중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입시대비 과목들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장수현 2013, 196). <표 2> 교육과정 단위 배정표를 보면 대학입시를 위한 반 편성과 중국어 혹은 한국어로 하는 수업에 쏠림 현상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강남 학부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은 맞춰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시사저널 2016/03/04)를 보면²⁸⁾,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최고

27) 이는 학부모 S1씨, S2씨,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제보를 염두에 두고 필자가 참여관찰을 하면서 확인한 바다.

28) 한국 초·중·고생 68.8%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 35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선비즈 2016/02/26).

목표가 경쟁 상대를 초월해 명문대 또는 평판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최저목표는 경쟁 상대에게 밀리고 나아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는 불안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에듀푸어’(Edu-Poor)²⁹⁾라는 신조어가 등장에서 보다시피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러한 ‘에듀푸어’는 ‘실버푸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자녀의 미래와 노후 대비를 맞바꾸는 셈이다. 학부모 S2씨는 “국제학교와 학원 보내는 딸 때문에 국내에 있는 남편은 등골이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다”면서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S2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나 K양의 하루일과를 보면 연구자의 수업을 수강한 몇몇 한인 유학생들은 ‘효자’들이고 한국내 학생들과 달리 ‘학업문제와 관계로부터의 해방’된 행복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2.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지중도 그렇다고 지한도 아닌’, ‘구별짓기’

한국 교육열의 모순점의 하나는 학부모들이 오로지 입시교육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전인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상술하다시피 입시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은 한국에서는 이른바 ‘강남엄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른바 ‘원정엄마’를 탄생시켰다. 정보력과 자녀의 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기초로 한국 어머니들의 ‘구별짓기’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칭다오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학교교육은 “공리주의나 입신출세주의를 동기로 하거나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부국강병주의에 지배되어 인간생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 실용적인 지식기능이나 극단적인 애국심만을 강조하

29) 가계가 적자 상태인데도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 말이다.

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³⁰⁾ 전인교육의 완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정과 사회의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학력주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청다오 한인 이주자의 가정교육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은 물론, 출신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불어 ‘지한’도 ‘지중’, 그러다보니 양국 교류의 ‘매개’와 ‘가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청다오 한인 이주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사회 활동 공간인 한인교회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교육되어지는 이주자간 ‘구별짓기’와 한인 이주자와 현지 중국인과의 ‘구별짓기’는 이른바 ‘중국통’이거나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아이’를 키우려는 학부모의 당초 목표에 위배되며, 한인 이주자와 현지 중국인간의 조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3. 유동적 이동성

상술하다시피 김지훈(2014)은 조기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 유형으로 ‘현지 계속 체류형’(로컬수준의 이동성), ‘제3국(1차 조기유학지)에서의 2차 조기유학지로의 이동(글로벌 및 지역적 교육 위계와 도약대로서의 2차 조기유학지) 유형’, ‘한국으로의 귀국형’(혹은 제3국으로의 재이주 후 귀국 유형) 등의 현재까지 이주 유형과 불확정된 미래의 재이주인 ‘유동적 이동성’을 제시했다. 청다오에는 한국대학

30) 전인교육 관련 정의는 두산백과 내용을 참조.

의 특례 입학 자격조건에 맞추기 위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의 사(영어)교육을 위해 온 사람, 중국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사람 등 목적도 체류기간도 매우 다양한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구지영 2011, 26), 환율,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교육풍토의 확산, 중국어 실력 향상의 한계와 영어 실력 향상으로의 선회, 국가관과 민족정체성 등 문제로 인해 중국내 또는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끝나지 않은 이동 여정 상에 있다. K양의 사례가 이러한 유동적 이동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대학 특례 입학 자격조건에 맞추기 위해 칭다오로 왔으나, 사전에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관계로 자격미달로 1차 좌절을 겪는다. 본인의 미술 특기를 살려 예술 특기자 전형에 준비하려고 하지만 알맞은 미술학원이 없는데다 개인과외 시 고액의 과외비 지출이 힘들어 결국 2차 좌절을 겪는다. 2차 좌절을 겪은 후 한국국제학교에서 칭다오2중 한국대학 진학반으로 옮겨 중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해 입시 준비를 계속 할 전망이다.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초국가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선택 또는 교육이 주는 유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남아 사례, 중국의 초국적 도시 사례(칭다오, 상하이)에서 공히 드러난다.

V. 결론

이 논문은 초국적 사회공간인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근면함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동양문화를 지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자녀교육열망(educational aspiration for children)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면서 이들의 높은 교육열망과 이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손인서 2015, 192). 또한 재미 한인 이주자에 대한 “이민생활 만족도” 관련 조사에서는 ‘자녀교육’에 이민생활의 최고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3/09/07).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열을 여러 번 극찬하면서(김용택 2015), 한국 학부모의 열정, 학생들의 노력, 교사에 대한 존경 등을 낙후된 미국 교육이 보고 배워야 하며, 한국을 미국이 본받아야 할 대표적 모범국가로 지목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이런 칭찬(?)이 무색하게 미국 내 한국인 초·중·고 유학생은 2만여 명에 이르며, 국적별로는 중국 다음가는 숫자다(오마이뉴스 2015/03/17).³¹⁾ 한국내 교육열의 수용(추동)하에, 아니면 그러한 교육열의 탈출을 위해 한인들은 영미권 국가로, 동남아 국가와 중국 칭다오로 이주했다. 이주지에서 한국적 상황은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고, 현지의 사회적 환경 요인의 영향하에 변질되기도 한다. 입시교육열, 사교육의 번성, 계층간·종족간 ‘구별짓기’, ‘원정엄마’, 불확정된 미래에 따른 ‘유동적 이동성’ 등은 한국적 상황을 칭다오에 복제해 놓은 듯하다.

한중교류에 있어서 ‘매개’ 또는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국 교육이주 경험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다양한 교육이주의 경험에 있어서 추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상이다. 연구자는 이상적인 교육상을 ‘지한’(知韓)과 ‘지중’(知中)교육이라고 본다. ‘지한’과 ‘지중’ 교육의 핵심은 많은 선행연구

31) 김용택, “세계가 놀란 한국의 교육열, 이제 경쟁의 늪에서 헤어ना야” 및 최현정(2015)을 참조.

들에서 강조하는 이중 언어 교육과 다중 언어 교육의 ‘언어’가 아닌 출신국과 거주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인 거주지 여건으로 출신국 역사문화에 대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지한’과 ‘지중’의 기초위에서 자녀에게 두 문화의 차이를 교육 및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기한 ‘구별짓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동남아국가 조기유학, 한국내 교육열 관련 선행연구를 다수 참조하면서 일부 비교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연구의 너비와 깊이에 있어서의 개선점이 많다. 더불어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표본이 적고, 또한 통계학적 연구에 필요한 작업, 계층, 소득, 학력수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 결과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아울러 자녀교육 실태 분석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한국내 사교육과 칭다오에서의 사교육 간 비교, 중국 기타지역과 비교 등의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투 고 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22일

참고문헌

- 구지영. 2011.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칭다오(靑島)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40: 1-37.

- _____. 2013. "동북아시아 이주와 장소구성에 관한 사례연구-중국 청도 (靑島) 한인 집거지를 통해." 『동북아문화연구』 37: 269-289.
- _____. 2014. "동북아시아 해항도시의 접촉과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한국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2: 127-162.
- 권정숙 · 서재복 · 김청자 · 이석열 · 이정원 · 장선철. 2008. 『신교육학 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 "기러기 아빠 vs 한국 교육열이 낳은 신조 영어 대치동 맘스." <http://blog.naver.com/esuccess/40020369934>(검색일: 2016. 01.10).
- 김경화. 2012. "재외 한국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성아. 2014. "재외한국학교의 진로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용택. "세계가 놀란 한국의 교육열, 이제 경쟁의 늪에서 헤어ना야."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0(검색일: 2015.11.15) .
- 김준희. 2008.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지훈. 2014.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동남아시아연구』 24(2): 207-251.
- 두산백과. "전인교육."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715&cid=40942&categoryId=31723>(검색일: 2015.12.11).
- 배진숙. 2010. "재외한국학교 평가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서에스터. 2012. "베트남 거주 한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손연아·손은령. 2013. "한 엄마의 가정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249-268.
- 손인서. 2015. "한국계 미국이민자의 자녀교육열망: 문화, 계층, 그리고 인

- 종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55: 191-232.
- 송응철. 2016.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시사저널』(3월 4일).
- 엄성원. 2015. "대학 글쓰기 재외국민반 운영의 개선 방안 연구." 『대학작문』 11: 161-188.
- 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1-17.
- 이성기. 2009. "韓·英·中 3개 국어로 수업 받아요." 『서울경제』(11월 11일).
- 이윤정. 2016. "'뒷걸음치는 공교육'...성적 상위 10%, 하위 20%보다 사교육비 2배 지출." 『조선비즈』(2월 26일).
- 이종각·김기수. 2003.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예성호·김윤태. 2014. "'초국가주의 역동성'으로 본 재중 한국인 자녀교육 선택에 대한 연구-상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8: 337-363.
- 장수현. 2012. "중국 청도 한국인 교민사회에 대한 연구: 지구화 시대 초국적 이주의 구조적 유동성." 『중국학연구』 62: 337-360.
- _____. 2013. "중국 청도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초국적 교육환경: 교육의 시장화와 다양성의 딜레마." 『열린교육연구』 21(1): 179-202.
- 장세길. 2009. "중국식 산업구조조정의 사회문화적 영향: 경쟁에서 배제되는 청도 한국제조업의 변화와 대응." 『비교문화연구』 15(1): 5-49.
- 장지혜. 2015.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과정, 젠더 그리고 자녀교육." 『동남아시아연구』 25(3): 91-138.
- 정대용. 2013. "'이민생활 만족' 75%... '자녀교육' 최고가치." 『한국일보』(6월 7일).
- 정 일. 2015. "재외한국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2015. 『뉴스레터』 125.
- 최기수. 2010. "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

교 석사 학위 논문.

최현정. 2015. "'한국 교육' 칭찬한 오바마가 몰랐던 한 가지." 『오마이뉴스』(3월 17일).

홍석준·성정현. 2009. "조기유학 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들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4): 239-262.

_____. 2011.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21(1): 1-47.

山東省教育廳. 2016. "山東省接受外國留學生學校名單."(4월 11일) http://www.sdedu.gov.cn/sdjy/_xxgk/_xxgkml/_ywgz/index.html(검색일: 2016.07.30).

Abstract

An Analysis of Child Educ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Qingdao

Li, Xiangyu

Ocean University of China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immigrants' child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 educ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ransnational social space-Qingdao, Chin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chooling was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among education program, cost and parents' choice, and information associated to home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was also partly reviewed.

The study has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Korean zeal for education and distinction by the social class and the ethnic were also found in Qingdao. And the emergence of "Traveling mothers" which suggest the "mothers in Kangnam", it showed "fluid mobility" due to the uncertain future as the same in the examples of educational migration to the northeast Asia.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ideal goals of educational migration to China are "Understanding Korean" & "Understanding China" education and to learn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it was really an irony that the 'distinction' found in

home and social education among Korean immigrants and between the Korean immigrants and local Chinese.

Keywords: Qingdao, Korean immigrants, child education, private education/early learning, home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